

세계 예술 속 우리 유물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박물관 스토리텔링

황윤 지음

바야흐로 K컬처의 시대다. 드라마, 영화, 가요 등 장르를 불문하고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K컬처 대열에 한국 문화도 합류하게 됐다.

우리 문화의 무엇이 세계인들에게 어필을 했을까.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인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들은 흥, 끼, 예 등 다양한 요인을 든다. 평자들마다 다른 원인과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 내재된 특유의 스토리를 거론하기도 한다.

박물관은 그 스토리가 응결된 미적 공간이다. 한 점 한 점의 유물이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데는 이야기의 힘 때문이었다. 유물에는 당대의 숨결과 민초들의 삶,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이상 등이 투영돼 있다.



오늘날 뮤지엄으로 통칭되는 박물관은 수많은 이야기의 보고다. 유물의 예술적 가치와 의미는 시대를 초월해 생명력을 획득했을 때 담보되는데, 그것의 전제는 이야기로 해석되고 소환될 때야 가능하다.

박물관 마니아이자 작가인 황윤은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이야기의 무대”라고 강조한다.

‘박물관 스토리텔링’은 그러한 저자의 사유와 주장을 담은 책으로, 뮤지엄이 지닌 ‘죽보’로서의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그동안 ‘도자기로 본 세계사’, ‘박물관 보는 법’ 등 관련 책들을 통해 박물관과 유적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간단히 말해 죽보는 계통과 혈통을 기록한 책을 일컫는다. 저자는 미술사에도 그런 죽보가 당연히 있으며 세계적인 뮤지엄들은 자국의 유물을 세계 미술사 등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먼저 불상의 죽보에 대해 거론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 불상의 죽보는 이렇다. ‘본관은 인도+ 성은 불교+ 파는 한반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 불상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전해졌다. 물론 불상은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

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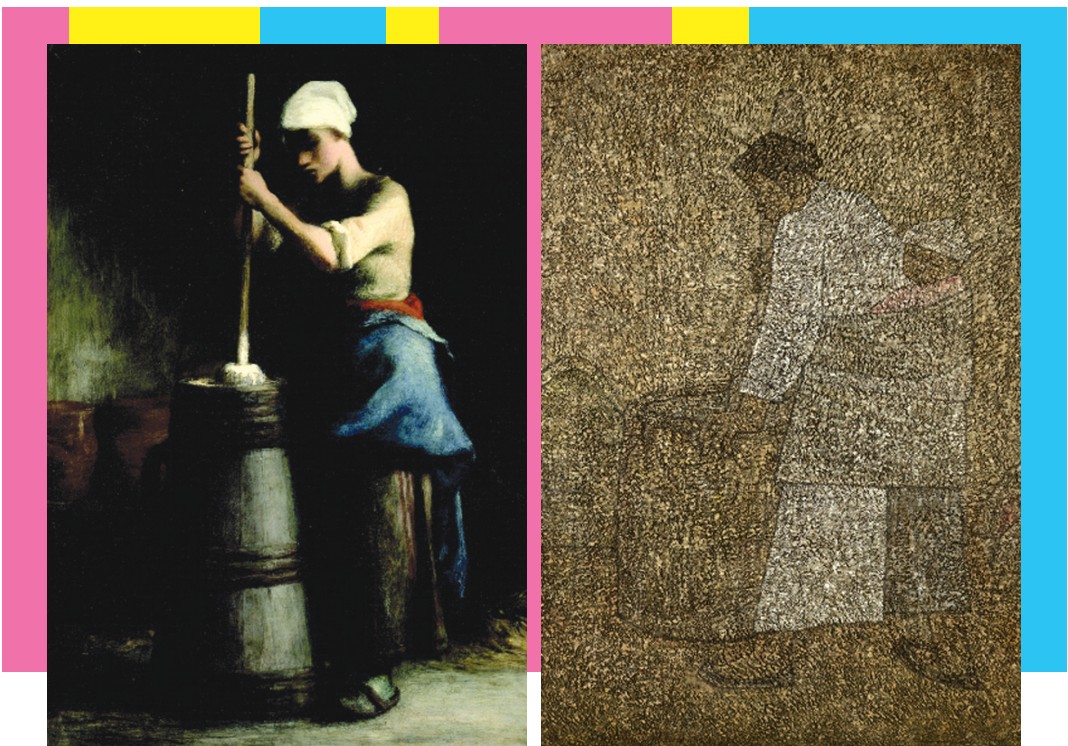
이동 경로는 자연히 불상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는데 시대와 국가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화된다. 하지만 죽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뿌리, 즉 간다라 불상에서 갈려져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둥글게 말린 머리카락인 나팔(螺髮), 두툼고 푹푹이 늘어진 귀”가 그러한 예다.

저자는 근현대미술의 죽보에 대해서도 견해를 드러낸다. 밀레는 인상파가 전면에 등장하기 이전의 작가로 주로 농민이나 평범한 서민을 주인공으로 그렸다. 당대 화가들이 묘사했던 영웅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멀었다.

박수근은 그런 밀레의 철학에 공감하며 주위의 평범한 인물들을 화폭에 담았다. 두 예술가 사이에는 100년이라는 간극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밀레의 예술이 박수근에게 전달됐을까.

저자는 1920년대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공모전이 개최되면서 일본인 심사위원들이 자국에서 유행하는 회화 주제, 다시 말해 ‘밀레의 그림 주제인 황토색을 심사의 중요한 배정 기준’으로 봤다고 설명한다.

한반도에서도 초기집, 장독대 등 민속적 소재들이 유행을 했고 “이상화된 황토색에 표현”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한다. 경향의 근원을 거슬러가다 보면 밀레를 만나게 되고,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아시아에서도 밀레는 20세기 초중반 황토색 회화의 시조처럼 여겨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박수근 외에 많은 근대작가들이 밀레의 그림



‘버터를 휘젓는 젊은 여인’(밀레 작·왼쪽), ‘절구질하는 여인’. 두 작품은 전반적인 구도와 분위기에서 비슷한 느낌이 있다. 박수근이 얼마나 밀레의 작품을 열정적으로 연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동 제공>

에 관심을 뒀을 것으로 본다.

또한 책에는 동양의 도자기가 서양으로 건너가게 된 과정 등도 기술돼 있다. 특히 저자는 우리 도자기 역사를 세계사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전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죽보 형식의 전시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동·2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미숙 지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단절되어 있다.”

고미숙 작가의 신작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까’는 모순된 현실의 문장에서 출발한다. 세상과 사람, 심지어 자신과도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연결’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폰과 SNS로 서로 닿아 있지만, 실상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시대의 풍경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책은 인문 교양 시리즈 ‘교양 100그림’의 한 권으로, 짧지만 밀도 높은 사유가 담겨 있다.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 ‘나의 운명 사용설명서’ 등으로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질서를 탐구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연결’을 새로운 키워드로 제시한다.

작가는 고독과 고립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고독은 성찰의 시간이며, 고립은 생명력을 잃는 감옥이다.”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짚어내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관계의 감각을 일깨운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전 읽기’를 제시한다.

읽고, 쓰고, 말하는 일은 오래된 인문학의 방식이자 타인과 세계를 잇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다. 작가는 고전을 통해 얻은 사유를 현실의 언어로 풀어내며 관계의 회복을 일상의 문법 속으로 끌어온다.

문장은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사색의 여백이 있다. 삶의 문제를 철학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인간의 감각과 경험으로 되짚는 점이 고미숙 인문학의 힘이다.

책 말미에는 독자들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건강한 혼자자와 고립을 구분하는 법’, ‘온라인에서의 연결을 오프라인으로 이어가는 법’과 같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들에 저자가 직접 답하는 ‘묻고 답하기’를 더했다. <창비·1만3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기후의 과학

마나베 슈쿠로 외 지음, 김희봉 옮김

지구의 계절이 흐트러지고 있다. 봄은 짧고, 여름은 길다. 폭염과 폭우가 뒤섞이며 기후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기후변화는 이제 제값의 영역이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놓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일본 기상학자 마나베 슈쿠로가 펴낸 ‘기후의 과학’은 그가 60여 년 동안 다듬어온 기후 모형 연구의 결정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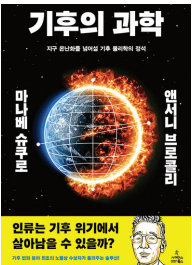
마나베는 산업혁명 이후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수학적 모형으로 입증한 인물이다. 그는 대기를 하나의 복잡한 물리 시스템으로 보고 온실효과의 농도 변화가 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했다. 1960년대에는 ‘복사-대류 모형’을 세워 온실효과의 작동 원리를 밝히고, 해양과 대기를 결합한 ‘대순환 모형(GCM)’을 개발해 오늘날 기후 시뮬레이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 연구는 미국 NOAA가 선정한 ‘200년간 10대 혁신’ 중 하나로 꼽혔다.

책은 이 기후 모형의 발전 과정을 따라간다. 초기 연구자들의 단순한 추정을 과학적 근거로 바꾼 1·2장을 지나, 3·4장에서는 기후를 실험할 수 있는 수치모형의 원리를 설명한다. 중반부에서는 ‘기후 민감도’와 ‘되먹임 효과’ 등 온난화의 메커니즘을 해설하며, 후반부에서는 해양과 물 순환의 변화가 어떻게 지구의 균형을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책의 미덕은 주장보다 증거에 있다. 저자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윤리적 외침 대신 지구가 왜 지금의 상태로 변했는지를 물리학의 언어로 차분히 풀어낸다. 방대한 수식과 그래프 속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기후는 인간의 선택에 반응한다.

<사이언스북스·3만3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HBR 위대한 통찰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지음, 도지영 옮김

세상은 늘 혁신을 갈망한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새 개념보다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된다. “좋은 조직이란 무엇인가, 리더란 어떤 존재인가, 변화는 어떻게 지속되는가.” 이 물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하며, 세대마다 새로운 언어로 다시 제기돼 왔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의 ‘HBR 위대한 통찰’은 그 질문의 궤적을 한데 엮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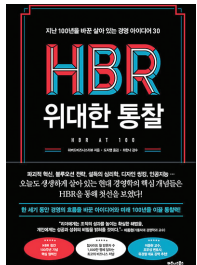
HBR은 1922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창간된 이래 기업 현장과 학문을 잇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저널로 자리해왔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의 시대’,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혁신의 딜레마’, 김위찬·르네 마보안의 ‘블루오션 전략’ 등이 모두 HBR을 통해 세상에 소개됐다. 책은 지난 100년간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온 대표 논문 30편을 한 권에 묶은 HBR 창간 100주년 기념 컬렉션이다.

책은 세 흐름으로 이어진다. 첫째, 일과 인간. 드러커는 자기이해와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경영하라’고 말하고, 대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이 리더십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둘째, 조직과 전략. 포터와 크리스텐슨은 경쟁과 혁신의 구조를 새롭게 분석해 경영의 언어를 다시 썼고, 김위찬과 르네 마보안은 치열한 시장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낸 ‘블루오션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미래의 경영. 인공지능, 탄소중립, 하이브리드 근무 등 변화의 시대 속에서 HBR은 지속 가능한 일의 방식을 모색한다.

시대를 달리해 쓰인 글들이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수렴한다. 경영의 본질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 판단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HBR은 수많은 사례로 증명해왔다.

<비즈니스북스·2만8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기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11월호

2025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개관 10주년 ACC
아시아 콘텐츠 히어로 성장 중

- ACC 10년의 성과와 과제
- ACC 창·제작스튜디오는 지금
- 국제적 전시 역량 확인한 ACC 10주년 특별전

A I C I C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남도 체험로드

오래된 도시
마한·조선 시간 여행
역사 숨쉬는 땅

문화를 품은 건축물

자연과 전통의 교감
돋보이는 건축미학
대구간송미술관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⑤

소치 묵화에서 본
호남 남화의
남도성

공연 화제

광주비엔날레2025

세계 거리 뮤지션들의 에너지 가득
5일간의 글로벌 쇼케이스형 축제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③

맛이 익어가는 가을
남도 미식 여행

북한문화공간 도시의 미래가 되다③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계 유일 디자인 복합문화공간

문화 화제

할아버지 아들 손자, 80일간의 여정
자동차로 유라시아 ‘송송송 가족여행’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④

뉴욕서 피카소 그림 본 화가 윤중식
“빨리 짐싸, 서울 가 그림 그리게”